



2026년 통권 제 104호 : 8월호



사회복지법인 의덕원 계 룽 호 센 터
노 인 요 양 시 설 계룡호주간보호센터

전 화: 042) 551-5629(요양원), 840-5629(주간보호) / fax 042) 551-5631

주 소: 충남 계룡시 두마면 대둔로 1380-49

이메일: krhyocenter@hanmail.net // 홈페이지: 계룡호센터.com

발행처: 계룡호센터

계룡호주간보호센터
계룡호센터



- | | | |
|--------------|-------------------|-----------------|
| 1. 종사자 현황 | 6. 사회복무요원 체험 수기 | 11. 노인학대예방포스터 |
| 2. 여는 글 | 7. 사회복지 실습생 체험 수기 | 12. 7월 정기후원 현황 |
| 3. 인권지킴이 방문 | 8. 주간보호 1 | 13. 7월 물품·후원 내역 |
| 4. 효 미용실 오픈! | 9. 주간보호 2 | 14. 7월 세입·세출 현황 |
| 5. 여가 활동 | 10. 7월 생신잔치 | 15. 공지사항 |

■ 공지사항 2

- 2026년 8월 생신 어르신
요양원 : 두균익(8일), 최재순(18일), 신현복(24일), 정숙희(27일)
백병문(29일), 이필(29일), 박서연(31일)

- 요양원, 주간보호 8월 행사 일정 안내

8월 행사 일정
생신잔치, 요리교실, 맛집배달음식대접하기

- 사진 게재에 따른 안내 사항

계룡효센터 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어르신들의 사진, 영상을 담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가족, 의료진 등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 관리자들과 건강상태 공유로 사진, 영상도 공유하고 있으니 원치 않는 보호자님들은 사무실(042-551-562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안내: 연회 시 음식물 반입에 대한 사항

어린이집, 요양원 등 기관에서의 음식물로 인한 삼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연회 시, 반입 가능한 음식물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자 합니다.

▶반입 금지 품목 (질식 위험) ▶음식물 반입 관련 문의 : 042-551-5629

떡류(찰떡, 인절미 등), 방울토마토, 포도, 그 외 단단한 간식류, 조리가 덜된 음식이나 시간이 경과한 음식, 1식 이상의 음식 등

- 연회 예약 안내 및 점심식사 사전 고지 관련 안내

사전 예약을 통한 대면 연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연회 예약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이 생활하고 계시는 생활실 연회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 원하시는 보호자님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재료를 하루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 점심 연회 시 식사 여부를 전날까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미리 연락 없이 당일에 식사를 취소하시게 되면 부득이하게 식비가 청구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보호자님께서는 지역보건 의료기관(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연 회 문 의 : 042) 551-5631
시 설 장 : 김연숙 010-4123-2349

· 후원안내&후원신청 ·

후원종류

● 비지정후원

[후원금 주요사용처]

- 긴급을 요하는 어르신의 의료비지원(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인지기능향상서비스(작품활동재료비, 인지치료기구, 노후물품교체, 전문강사 섭외비용 등)
- 개별적인 욕구서비스 운영(나들이, 음식점, 필수품, 의류 및 침구, 명절선물, 생신상 등)
- 어르신들 모임활동비지원(어울림이 가능한 어르신들과의 모임(계)활동 지원 등)
- 어르신들의 건강서비스지원(보조기구, 운동물품, 간식, 영양제 등)



후원방법

- 지정후원 자동납부: 매달 25일
- 무통장입금: 301-0205-7370-21 (농협) 계룡효센터
- 후원물품 발송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대둔로 1380-49 <계룡효센터>

후원문의

♣ 042- 551-5629(계룡효센터)

♣ krhyocenter@hanmail.net



■ 여는 글

요양원과 주간보호 115명의 어르신을 한 분 한 분 떠올려보며
MBTI 성격유형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E: 외향적이면서 에너지가 좋은 어르신

I: 내향적이고 쉽게 자기의 욕구를 말하지 않는 어르신

S: 경험과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르신

N: 그때그때 분위기를 보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어르신

T: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성향의 원칙주의적인 어르신

F: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유연성 있게 행동하는 어르신

J: 조금의 호트러짐도 절대^^용납 안 되는 어르신

P: 즉흥적이고 돌발행동으로 당황하게 만드는 어르신

성격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감정 상태도 다르고

요구하시는 것도 다르고, 인지 상태도 다르고

수면 상태도 다르고, 아픈 곳도 다르고, 성장배경도 다르고

어울림도 다르고, 취미도 다릅니다.

또한 고집과 지나친 요구가 강한 어르신도 있습니다.

성격유형으로 봤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런지 감이 오는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해져 가는 당신의 모습을 인정하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지키는 감정 표현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돌봄은 어떤 돌봄이어야 할까요?

어르신들 각각의 수많은 정보를 건강하고 영리하게 수집하여
꼭꼭 맞춤 돌봄에 적용해야 하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돌봄은 건강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유례없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는 여름의

한가운데 직원들이 가파스로 매달려 있습니다.

이 더위를 견뎌내 주는 것만으로 고맙다고 해주시면
거뜰히 매달리고 안전하게 착지할 겁니다^^감사합니다.

계 룡 효 센 터

계룡효재가복지센터 시설장 김연숙 올림

■ 인권지킴이 방문



최근 우리 요양원에 외부 '인권지킴이' 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인권지킴이 활동은 시설 내에서 어르신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종사자들 역시 상호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날 방문한 지킴이분들은 시설 내부의 안전과 위생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 한 분 한 분과 따뜻한 눈빛으로 대화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과 조언을 겸허히 수용하여, 어르신들께는 '내 집처럼 편안한 보금자리'를, 직원들에게는 '보람찬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방문해 주신 인권지킴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후원

7월분 CMS 정기후원 현황

분류	후원자
직원 (53명)	간호연 고남숙 길성숙 길인숙 김명순 김명자 김상옥 김선미 김연숙 김영미 김영서 김영숙 김용숙 김인숙 김지원 김창환 김현숙 김혜령 김혜리 김혁언 남순희 민경용 민경희 박경순 박영숙 박은주 박해분 박희숙 배윤정 성수목 신윤영 신현미 유장순 윤석남 윤준호 이귀예 이병란 이수진 이영애 이옥희 이용남 이임순 이정수 장 미 장미용 전경순 전재한 전현숙 정순옥 최운순 추미라 한재이 홍성점
보호자 (65명)	강기석 고숙영 김명순 김미자 김숙이 김영숙 김영식 김용장 김윤옥 김중현 김한송이 김현경 김현숙 남원석 류금숙 박단열 박중화 박해숙 백연실 서완실 서정석 서준혁 서철호 송성미 신현범 안지숙 양영임 유윤이 윤경원 윤여인 윤한중 이경선 이경행 이경현 이규상 이명랑 이병희 이소윤 이순주 이영실 이원희 이은영 이은희 이정진 이지우 이찬영 이태구 이현주 이형주 임성현 임재숙 임재현 장선익 전정남 전해룡 정미영 정윤원 정창기 조경식 추 관 한다혜 허수용 현용현 홍성용 홍종배
개인 (42명)	강주원 공미금 권혁진 김경훈 김금자 김기수 김병남 김영복 김원중 김정옥 도현자 문현식 박선화 박성호 박옥수 백승곤 변주희 손 석 원서현 이경섭 이소윤 이정신 이창재 이채민 임강수 임정임 정세연 정소유 정수진 정용호 조민근 지계화 진찬성 최성원 한기찬 홍민기 법원스님 마하맘센터장님 선재어린이집원장님 논산사랑요양병원 영메디칼 청담고등학교법사님

■ 노인학대예방포스터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나비새김

노인학대예방,
신고가 힘이 됩니다.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다운로드
바로가기
(QR코드 스캔)

다운로드
바로가기
(QR코드 스캔)

노인학대 신고 상담
1577-1389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신고기능

위치 기반 신고연계 사진 / 동영상 첨부 익명성 보장

■ 효 미용실 오픈!



기술에 마음을 더하다! 30년 경력 미용사 실습생의 '사랑의 미용 봉사'

우리 요양원에는 요즘 아주 특별한 사회복지사 실습생 분이 계십니다. 바로 현직에서 30년 동안 가위를 잡아오신 베테랑 미용사 출신의 실습생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바쁜 실습 일정 중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해 주셨습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다져진 능숙하고 섬세한 손길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의 머릿결은 깔끔하게 정돈되고 얼굴에는 화사한 봄날 같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르신의 두상과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스타일링 덕분에 요양원 복도는 온통 멋쟁이가 된 어르신들의 자랑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도전인 사회복지 실습 과정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기술로 어르신들께 큰 행복을 선물해 주신 실습생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즐거운 여가 시간

햇살 좋은 오후 효담카페에서 퍼즐, 젠가, 컵쌓기, 장기 등 다양한 놀이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게임에 집중하고 서로 응원하며 자연스럽게 웃음꽃도 피어나는 오후 한 때였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생각하는 활동을 통해 활력을 더하고, 정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화이팅!



오늘도 어르신들의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갑니다.



■ 7월 생신잔치

HAPPY BIRTHDAY

소중한 어르신들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웃고, 축하의 마음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에 우리 모두의 마음도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 주간보호 2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올여름 최고의 피서는 바로 여기!
튜브 위에 등등~ 알고 보니 주인공은 바로 나!
본인의 사진을 보시고 "어머, 내가 저기 있네!"
하시며 환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여름바다 접수 완료!
웃음도 추억도 가득 담은 시원한 인지미술
시간이었답니다.



★ 윤시영 사회복지무요원 체험 수기

★ "차렷! 경례!"로 시작되는 하루



"어르신 존경합니다"

"선생님 존중합니다"

"차렷, 경례!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침마다 매일 외치는 경례는 어느새 내게 가장 경건한 일상이 되었다. 눈이 펄펄 쏟아지던 1월, 입김마저 얼어 붙을 것 같던 3주간의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첫 출근날이 되었다. 내가 경례를 가장 자주 올리게 될 상대가 꽃무늬 내의를 입고 소파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그렇게 내 또래 친구들이 입대하여 총을 들고 추위를 견딜 때, 나는 사회복지무요원이라는 이름으로 '계룡효재 가노인복지센터'에 배치되어 어르신들을 모시게 되었다.

어르신들의 마주함 속에서 배운 일상

복무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는 어르신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다가가는 법을 몰라 걸돌기도 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안부를 여쭙고, 프로그램 시간에 함께 박수를 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사이 어색함은 자연스럽게 온기로 채워졌다. 거창한 사건이나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손을 잡고 산책을 도우며 그분들이 살아오신 세월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되었다.

어르신들이 건네주시는 따뜻한 눈빛과 미소는 내게 매일 출근하는 이 공간을 단순한 복무지가 아닌, 진정한 배움의 터전으로 만들어 주었다. 어르신들의 곁에서 함께 호흡하고 미소를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례의 시작이자 내가 이곳에서 배운 가장 값진 태도였다.

오늘도 경례합니다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들어가~."

배움을 마칠 때마다 어르신들은 꼬박꼬박 인사해주셨다.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그 다정한 인사들이야말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자, 내 하루를 가장 따뜻하게 마무리해 주는 선물이었다.

어색했던 첫 경례로부터 7개월, 이제는 익숙해진 나의 경례에는 어르신들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깊은 존경과 더불어, 이 소중한 일상을 평온하게, 행복하게 함께하겠다는 나의 단단한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다.

오늘도 나는 아침마다 어르신들께 경례한다. 이제 그 경례는 훈련소에서 배운 낮은 동작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값진 배움을 안겨준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가장 진심 어린 인사가 되었다.

★ 유재은 사회복지 실습생 체험 후기

계룡효센터에서 배운 따뜻한 복지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생입니다.

섬세한 케어, 지극한 마음

원장님께서서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마치 친부모님을 모시듯 정성껏 돌보십니다.

어르신의 작은 표정과 손짓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필요한

것을 먼저 알아채고 행동하시는 모습은 예비 사회복지

가족처럼 따뜻한 센터의 분위기
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어르신들을 맞이하시고, 오픈마인드로 소통합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돌봄은 가족들에게도 투명하게 전달되어,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신뢰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진정한 휴먼 서비스, 가족 공동체

단순한 시설을 넘어 어르신과 가족, 직원이 함께 웃고 마음을 나누는 계룡효센터는 진정한 '휴먼 서비스'와 '가족 공동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계룡효센터에서의 실습은 저에게 잊지 못할 배움과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향한 진심 어린 돌봄과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의 모습은 제가 앞으로 나아가갈 길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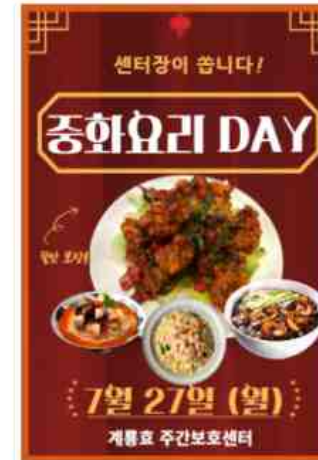
원장님과 복지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곳에서 배운 마음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하루가 더 행복해지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



■ 주간보호 1



"짜장면 시키신 분~!
여기요~!"



모두가 기다리던 짜장면 DAY!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니 더 맛있는 짜장면과 고소한 볶음밥, 새콤달콤 만풍기를 드시며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활짝 피었습니다.



면발보다 웃음이 더 길~었던 행복한 짜장면 DAY!
든든한 한 끼와 함께 추억도, 웃음도 가득 채운 특별한 점심시간을 보내셨습니다.